

정보화시대와 인간 (Man and Computer)

김주한 전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psyber@plaza.snu.ac.kr; <http://plaza.snu.ac.kr/~psyber>

사이버리즘(Cyberism)과 공주병

미국의 엘 고어 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란 이름으로 촉발한 세계적인 정보화 전쟁은 이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제가 되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보화란 광케이블로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빌게이츠 회장의 주창처럼 누구나의 손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멋진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E-mail과 web의 멋진 면만을 체험한 네티즌들은 앞다투어 이 멋진 복음의 전도사가 된다. 하지만 그뿐인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정보화라는 멋진 포장을 끌러내고 열어본 판도라상자 안에는 가상현실기술과 인공두뇌학으로 우주를 사이보그화하여 인류를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사이버화(cyberization) 사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이버리즘(cyberism)이라는 단어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인공두뇌학(cybernetics),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사이버섹스(cybersex) 등과 같은 첨단 단어에 매우 익숙한 분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말이다. 사이버리즘은 이런 모든 기술들을 통합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람의 필요에 지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듦으로써 환경에 고도로 인격화된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이다. 모든 환경을 터미데이터2에서 보이는 액체금속처럼 부드럽고도 견고하며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정밀하고 거대한 유기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피곤하면 바닥은 의자가 되고, 넘어지기라도 할라치면 모퉁이는 부드럽게 당신의 무릎을 피해 물러나서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RAM에 다운로드시키고 잠들 수도 있는 과학기술로 사람과 우주가 일체가 되는 진정으로 사이버적인 이상향이다.

혹자는 사이버리즘을 허무맹랑한 공상과학소설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류가 화폐를 발명한 이후 가상의 가치는 실제의 가치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전화를 발명한 이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해져버린 이 가상의 대화는 그 대화의 상대방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공간적 거리감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마비시켜버렸다. 사이버리스트(cyberist)들의 꿈은 이미 도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가상기술을 통해 자연과 사람 모두가 기계화 되어서 실내로 옮겨져왔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흔히 우연한 유행처럼 나타난 사회현상에서도 무척 흥미로운 의미를 발견하곤 한다. 필자는 어느날 문득 이 정보화 열병과 사이버리즘이 가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종 유행병인 공주병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화가 아니다. 그것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첨단 과학기술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구원의 메세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정보기술을 이 사이버리즘의 환상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우리를 열광케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가?

인류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밖의 그저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거주하는 저급한 사람들과도 분리되기 시작했다. 모두들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견고한 집을 지었고 나중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을 쌓았다. 그 성에서 태어난 성주의 딸을 공주라 불렀다. 공주는 다른 저급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인공이 많이 가미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물을 묻히지 않고 발에는 흙을 묻히지 않으며 성 안에서 사는 것, 즉 자연상태와 멀어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저급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질적 욕구의 무한충족이라는 세 번째 특성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주는 훌륭한 소비자다. 아니 무한한 소비자다. 공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물이 아니며 자신의 삶의 양식에서 창조된 지극히 인공적인 가상의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상기술로 형상화될 것이다. 공주는 가상체보다는 진품 다이아몬드를 더 선호할 것인가? 정보화시대의 왕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여러 예술 작품들의 전자판권 매입에 나서자, 누군가가 그의 매입 담당자에게 그가 진품과 복제품의 차이를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물론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또한 회장님은 복제품을 훨씬 더 선호하십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가상현실이 현실보다 더 재미롭다는 것과 우리가 놀랍도록 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신적 욕구의 무한충족이라는 퇴행적, 의존적, 강박적 심리적 특성이다. 퇴행은 정신의학적으로 어린 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는 현실세계에 노출되기전 어머니의 품속으로의 회귀이다. 그 극단은 출생전 자궁속으로의 퇴행이며, 그 속의 태아는 외부세계와의 철저히 격리되어 모성에 자기자신의 생존까지도 철저히 의존하는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공주병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들은 적어도 스스로가 자신을 공주병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주(?)들과 구분된다. 이 말은 과거에는 버릇없고 응석받이면서 자기만 아는 이였지만 지금은 너도나도 자기가 공주병이라고 광고한다. 이 현재의 공주들은 예전과 달리 문제를 조금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거나 적어도 자연스러워한다. 그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직도 공주가 못된 사람은 바로 저급한 사람이다.

현대문명은 자연 그대로의 냄새가 적어질수록 인간적이라는 믿음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치 사이버스페이스의 은밀한 침습이 그렇듯이, 외계와 차단해주는 성벽과, 타인과의 접촉을 간접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종들과, 물질적 정신적 욕구의 무한한 충족이 그토록 재미롭게 공주를 사로잡음으로써 그녀를 좀더 높은 사이버스페이스로 밀어 올린 것은 아닌가? 인간의 의식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주병이 공주가 되듯이 벌써 네티즌을 넘어서 사이버리스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도 현실세계로부터 가상현실로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진화의 방향을 같이한다. 과거의 공주병이 공주가 되고싶은 안달에서 비롯된 공주환상(princess illusion)이었다면 지금의 공주들은 가상가치의 대한 욕구충족으로 길들여진 사이버공주증(cyberprincessism)인 것은 아닐까?

가상의 가치만을 무한히 추구하는 가상공주는 훌륭한 소비자이다. 그점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복자들이 그 좋은 점만을 집요하게 부각시켜 순진한 우리들을 열광케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강어귀가 딸리고 무척 아름답다는 4만평의 저택에 사는 진짜왕자(real prince)격인 빌 게이츠 자신은 사실은 진품을 더 좋아할런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상가치에 길들여지고 있는 사이에, 필자는 가상공간의 모든 거주민에게서 세금을 거두려는 빌 게이츠 회장이 훌륭한 네티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사이버리즘의 전도사들은 그저 손가락 끝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에텐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며 떠밀지만 우리는 늘 많은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 열풍에 휘말리면서 다시한번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화만으로 르완다 난민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메스미디어에 길들여진 가상공주들이 큰 나비리본이 달린 드레스를 사려고 밤새워 상점앞에 줄서있는 장면은 밤샘 끝에 윈도우즈95 출시판을 양손에 사들고 환호하는 사이버네티즌(cybernetizen)들의 모습과 섬뜩하리만치 유사하다.

눈치빠른 독자라면 이미 알아챘겠지만 필자가 비평하는 것은 네트워크나 정보화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선구자들이 정성들여 구축해온 인터넷이라는 촌락을 하루아침에 삼켜버리려는 몇몇 반문

화적 이데올로기들이다. 그들은 시녀보다는 그래도 공주가 났다는 우리의 이기심과 질투와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을 서슴치 않으며 더이상 늦으면 큰일난다는 절박한 불가피론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교환, 혹은 오락 등을 위해 개발된 도구에 불과한 것들에 절박한 신성(神性)을 부여하고 급기야는 안달난 신도들을 양산한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공주와 시녀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사이버스페이스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다. 주인의식과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무장된 진정한 네티즌들(real netizens)이 이 미지의 땅을 개척하고 문화를 심는다면 좀더 인간적인 모습의 사이버스페이스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진정 사람들을 위한 자료로 풍성한 따뜻한 웹사이트를 만날 때마다 고개숙여 감사한다. 지금 막 싹트기 시작한 작은 떡잎들이 먼 훗날 인류의 위대한 도약으로 기억될 것이다.

* * *